

github, branch 와 issue label 의 활용의 아쉬움

- 악마의 유혹, branch
 - 가르치면 분명 난리가(?) 나겠지만, 한번 도전해보고 싶음
 - -no-ff 꼭 필수로 알려줘야 할 듯..
- issue label 기능
 - 가능하면 label 기능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도록 만들고 싶음

그리고, 강사도 마지막 발표날은 꼭 가도록 하자

- 은근히 아쉬웠음 π.π

Travia

파블로프의 코딩(?) 조건 반사!

- 작업때 음악을 계속 틀다보니, 어느덧 적응이 된 학생들은...
- 쉬는 시간 이후,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진행하라고 음악을 틀었더니,
- 시끄럽게 수다를 떨다가, 음악 소리가 들리자, 모두 조용히(!) 코딩하러 자리로 가더라...는....ㅏ.ㅡ
- 물론 음악은, 언플러그드 등에서 적절히 잘 활용됨 :D

학생 호칭 관련

- 많은 별명들이 양산됨
- 이름은 까먹어도, 팀장등의 '책임자'급 으로는 부르지 않도록 신경씀
 - 모두의 폴젝이니까 :)
 - 가끔, '외로운 늑대'는 언급
 - 고생이 많소, 혼자 개발 많이 하느라...